

서양사상사의 중요한 흐름 모두 담아

김영한·임지현 엮음 《서양의 지적운동》(1·II)

이상신

고려대 교수·서양사학

《서양의 지적운동》 I권은 서양사상사를 개척한 차하순 교수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총으로 이미 94년초에 출간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I권에서 취급되지 못했던 사상들을 추가하는 II권이 출간되었다. 이 저작은 I권과 II권에 모두 44개의 '이즘'을 수록했으므로, 서양사상사의 중요한 흐름을 거의 모두 담았다고 볼 수 있겠다. 필자들은 차교수의 직계제자뿐만 아니라 서양사학계의 신진 및 소장학자를 망라했고, 비서양사학의 전문학자도 참여했다. 편집은 차교수의 학문을 계승한 김영한 교수가 맡았으며, 아마도 기획도 그러했던 것 같다. I권의 기획범위를 보완·확대하여 II권까지 완성시킨 편집자와 모든 필진들의 노력은 마땅히 찬사를 받을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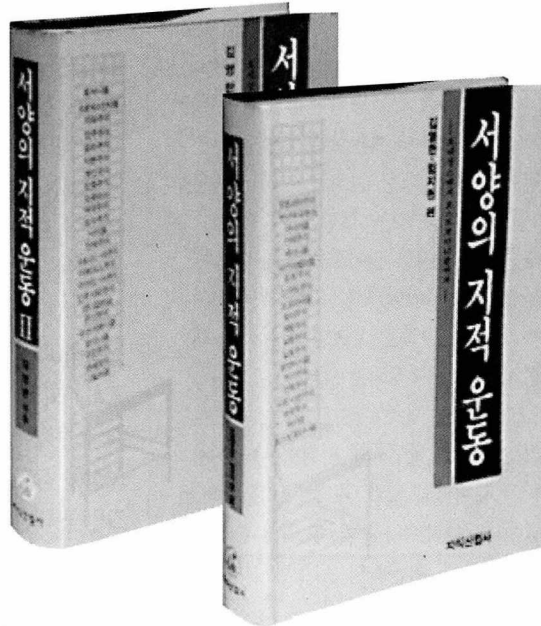
서양 '이즘' 이해와 연구 지침서

이 저작은 몇가지 돋보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근세 이래의 이즘을 알파벳순서로, 또는 등장했던 연대순서로 편집하는 방식을 지양하여 I권은 이상사회론, 현실정치론, 과학과 진보의 신앙 등의 범주로, II권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 집단과 전체에 대한 헌신 등의 범주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상호연관성과 공통성이 있는 이즘을 묶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 이즘을 비교적, 연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결국에는 각 이즘 자체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편집방식이다.

다음으로, 이 저작은 단순한 사전적인 작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집필자의 대부분은 해당 이즘에 관해 학위논문을 쓴 바 있거나, 관련주제를 연구한 바 있으므로 해당분야의 최근 연구동향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이다. 그러므로 이 저작은 독자에게 각 이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방향의 계속적인 연구도 가능케 해주는 지침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들에서 두권의 이 방대한 출판은 곧 현재 한국서양사학계의 역량을 과시하는 일이며, 실로 서양사학자들 모두 자축할 만한 쾌거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서평에 즈음하여, 그리고 이와 유사한 뒤이을 작업을 위한 제언으로서 필자는 몇가지 언급해 보고자 한다.

44개의 '이즘'을 40여명의 필자가 참여하여 정리한 이 책은 한국 서양사학계의 역량이 집중된 결실이다. 각 이즘에 대한 이해와 비교를 통해 서양사상사의 중요한 흐름을 집대성했다.



첫째, 서양사상사의 많은 흐름을 집대성하는 이와 같은 작업은 단독이 아니라 복수의 전문학자가 공동토론 속에 기획 및 편집되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 많은 사상들을 한 사람이 섭렵하여 정리 편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만큼 부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바로 그러한 공동기획이 없었던 때문인지, 두권의 저작에서는 일정한 공동의 분석방법론과 해명목표가 설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44개의 이즘을 무려 40여명이 각각 집필하는 데 있어서 그 글이 각각으로 되지 않도록 각 이즘에 대한 접근과 해명작업에서 공동으로 지키는 분석과정이 설정되고, 또한 각 이즘의 전체모습을 파악하되 특히 어떠한 국면과 의미를 부각시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보다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래야만 독자가 필요할 때 하나의 항목만을 찾아보는 사전이 아니라 분류된 범주의 이즘을 실체로 연관적으로 이해하여 각 범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저작에서도 각 이즘은 어의(語意)·연원·유형·핵심사상·역사적 의미와 영향 등의 순서로 해설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사고가 이즘으로서 형성된 역사적 내력, 실제적인 목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파된 사연, 현실적인 성과 여부와 이유 등을 해설해 주는 것까지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역사주의' 항목은 이에 관한 논의를 폭넓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작성될

수 없는 탁월한 글이지만, 이 사상의 형성과정과 근본핵심을 설명하면서 그 깊은 의미를 해명해주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여러 가지 논의를 교차적으로 제시하는 데 열중함으로써, 결국 긍정적 의미를 개체성뿐만 아니라 발전사상에 입각하여 해설해주지는 못했다.

'민족주의'는 이것의 왕조 지배적 기능 외에도 평등한 질서를 보장해주는 구호가 되었을 때 사회해방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한 수작이지만, 그 역할과 기능을 주로 동유럽의 경우에서 설명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 이념이 19세기 중엽부터 우파적 이데올로기로 되면서 보여준 정치·사회·문화적 역기능과 특히 19세기말 제국주의를 형성시키는 중요한 한 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한국서양사학계의 역량 과시

'보수주의' 역시 자체의 여러가지 교의(敎義)를 설명하면서 그 유형을 분류해 주고 있으나, 이 이념의 기초를 제공했던 버크를 근거 있게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개혁과 변화를, 요컨대 진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발전적 보수주의'의 모습도 있다는 점을 해설하지는 못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항목은 '계몽주의'다. 이 항목은 이른바 계몽주의가 전파된 경로와 범위, 각 지역에서의 차이점 등을 소상히 소개하여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으나, 이 글의 어디에도 18세기 당시의 정치·경제·사

회 등 여러 분야의 계몽적 사상들의 공통적 기반이 합리주의·자연법·진보사상이며 다 함께 공동의 복리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 설명되지 않았다.

간과되어서는 안될 바는 당시에 '계몽'을 추구했던 여러 분야의 사상들이, 비록 공통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으나 계몽군주주의적인 볼테르와 인민주의적인 루소에게서 그러했듯이, 출발점과 처방책이 다르기도 했고, 사상체계가 달랐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 요컨대 여러 사상이 하나의 또는 공동의 이론체계를 세우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지적운동을 총칭하는 'Enlightenment, Lumière, Aufklärung'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뿐, 그것이 결코 하나의 'ism'으로 지칭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계몽주의'란 한국식 표현이다. 물론 이 지적운동이 '계몽사상'의 제목으로 다른 이즘과 함께 나란히 해설될 필요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편집자는 각 이즘의 "내적 발전과정을 정태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즘과 이즘간의, 이즘과 사건간의 충돌과정을 동적으로 파악하고자" 의도했으므로 '서양의 지적 전통'이 아니라 '지적운동'을 제목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각 집필자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저작은 한국에서 현재까지의 서양사상사 연구를 집대성한 작업이므로 일차적인 의미는 충분히 달성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 글을 집합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이상과 현실간의, 이즘과 실제간의 관계, 그 조화와 괴리는 어떠하며, 실현가능성과 좌절은 언제, 어디에서 왜 일어났던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주는 작업을 사상사연구의 보다 큰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언급들은 어디까지나 미래적, 이상적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 저작은 현재의 한국서양사학계의 가능한 힘들이 거의 모두 모였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의 노력이 집중되어서 나온 결실이라는 점이다. 편집자와 집필자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

지식산업사/A5신/각 764면 내외/각 25,000원 내외